

시적 순간의 체험과 영원성의 성(性)

- 정전(正典)으로서의 서정주 시에 대한 고찰

김신정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전(正典)으로서의 서정주 시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작품 내재적인 분석 방법을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서정주 시가 지닌 정전으로서의 위치와 아울러 정전으로서의 서정주 시가 한국문학사에 끼친 영향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착안한 지점은 서정주 시에 나타난 '영원성'과 '여성성'의 세계이다. 서정주 시가 주요한 주제로 삼는 '영원성'과 '여성성'은 그의 시가 시적 본질에 대단히 충실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서정주 시가 보여주는 '시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그의 문학을 정전의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요인이면서, 한편으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시적인 것'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사실이 정전으로서의 그의 시가 한국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정주 시에서 '영원성'에 대한 탐구가 '여성성'의 표상과 결합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서정주 시에서 '여성성'이 '영원성'의 세계를 구현하

*이 논문은 '여성의 눈으로 정전(正典)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던, 한국여성문학학회 제6회 전국학술대회(2001.6.2)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동국대 김춘식 선생님과 본고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신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세계에 초월적이고 주술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파악하는 정전으로서의 서정주 시의 의미점은 그가 추구한 '시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서정주는 '시적인 것'의 본질과 순수를 일관되게 추구함으로써 한국 서정시의 정통적인 전범을 제시한 시인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정통 서정시의 모델은 동일화 원리에 기초한 합일과 초월의 공간으로써 전통과 토속의 세계를 끊임없이 불러들이며 한국 시의 주류를 협소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정전(正典)으로서의 서정주 시

1) 정전 형성과 문화공동체

정전(canon)이라는 용어는 자(尺) 혹은 측정봉(樺)을 의미하는 그리스어(kanon)에 기원을 두고 있다.¹⁾ 규칙, 표준, 모범, 한계, 세금 평가 등의 뜻으로 사용되던 이 말은 기독교 문화의 확대를 배경으로 차차 신의 현현된 말씀, 즉 성전(Holy Scriptures)으로 인정된 기독교 성서의 구약 및 신약 책들, 또는 성전의 저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²⁾ 그와 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저자들(텍스트들)의 선택 원리를 암시하였다.³⁾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전'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정전의 규범적 성격이 세속적 문화에 확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정전'은 "한 문화권 안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계속 보존되고, 계속 재생산되는 텍스트"⁴⁾들을 총칭한다. 이 용어가 문학 비평에서 쓰일 때에는 "문학의 기성 체제에서 느슨한 합의를 통해 '위대하다'고 간주되는 작품과 작가"⁵⁾를 지칭하는 것으로

1) Robert Scholes, "Aiming a Canon at the Curriculum". 송무, 『영문학에 대한 반성』(민음사, 1997), p.341에서 재인용.

2) 송무, 위의 책, p.341.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편, 황종연 역, 『현대 문학 문화 비평 용어 사전』(문학동네, 1999), p.100.

3) 송무, 위의 책, p.341.

4) 송무, 위의 책, p.342.

5)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편, 황종연 역, 앞의 책, 같은 면.

로 사용된다.

저자나 작품이 '정전'으로 확립되는 과정은 수많은 요인들의 축적⁶⁾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한 문화공동체의 자기정체성의 수립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정전이란, 자신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집단으로 구별하는 문화공동체가 자기정체성과 특수성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공동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이 항상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특히 근대 이후 민족(국민)국가의 성립과 국민문학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정전이 구현하는 공동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의 성격에 대해 질문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근대 이후, 국가는 공동체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였지만, 그 표지가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근대 민족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언어, 또는 문학은 문화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와 함께 국민문학 정전은 민족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을 재구성하려는 기도 속에서 형성되고 내세워졌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전통을 중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소수 집단-소수 종족·인종, 여성, 대중 등-의 문화가 정전에서 소외되었음은 물론이다.⁷⁾ 정전 비판의 목소리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 정전은 한 문화 공동체의 전통을 올바르게 대표해야 하는 것인데도 정체성의 구성과 확립을 주도하는 집단에 의해 특정의 텍스트를 선택·왜곡·배제하는 일이 이루어질

6) 일반적으로 저자나 작품에 대한 비평가와 작가들의 반복되는 참조, 일반 공동체에서의 저자나 작품의 유행, 학교와 대학 교과과정에서의 저자나 작품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엮음, 황중연 옮김, 앞의 책, 같은 면.

7) 송무의 앞의 책은 영문학의 형성과정과 역사를 중심으로 '영문학의 정당성과 정전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 의미깊은 저서이다. 그는 이 책에서 정전의 의미와 비판지점을 근대 국민문학의 형성과정 속에서 다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특히 '영문학의 출현과 제도화' (pp.67-110), '국민문학의 이념과 정전의 형성' (pp.321-360)에서 국민문학과 정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보여준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구 근대문학사는 정전의 형성과 재독(再讀) 및 재평가, 그리고 전통적 정전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립하는 비판적 정전을 구축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문학의 사정은 어떠한가. 대답을 앞당기자면, 한국 근대문학에서 정전 비판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구 문학에 비해 근대문학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대문학 100년 동안 생산된 수많은 작품들을 판별하고 평가할 만한 확립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즉, 한국문학의 경우 정전 비판 이전에 합의가능한 정전의 목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가의 명성이나 권위, 문단 권력이 아니라 ‘텍스트 상으로 확인되는 권위’⁸⁾에 의해 근대문학의 정전을 확정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한국 근대문학의 정전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정전 다시 읽기’를 시도하는 본고의 작업은, 그런 의미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일단 본고는 서정주의 시가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정전의 하나로서 합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정전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정전으로 꼽을 수 있는 몇몇의 작가와 작품이 존재한다. 서정주는 그 가운데서 첫 반열에 오를만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한국문학의 대표적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한국문학의 정전으로서 서정주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⁹⁾ 본고의 논지 전개를 뒷받침할만한 것이다. 비록 판단과 취미의 확립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한국 근대문학 전체에 적용하는 일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에 관한 논의로 미루어보아 제한적인 의미에서 서정주를 한국 문학의 정전 목록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한국근대문학 100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동서문학』(동서문학사, 2001년 봄), p.56.

9) 위의 글, pp.55-61 참조.

문제는 왜 어떻게 그의 문학을 한국시의 정전이라 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서정주가 정전으로 확정되는 과정이 그 하나라면, 또 하나의 관점은 서정주 문학의 특성 그 자체를 고찰하는 것이다. 전자의 관점은 서정주 문학의 위치를 좀더 객관적인 지점에서 확인하게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 내재적 원인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후자의 관점은 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서정주 문학의 특징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반면에 그의 문학이 문학사·사회사와 교호하는 과정을 깊이있게 고찰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후자, 즉 작품 내재적인 관점에서 서정주의 시세계를 고찰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진행하는 서정주 시에 대한 작품 내재적 분석은 궁극적으로 그가 한국시사에서 갖는 정전으로서의 위치, 또는 그가 한국시사에서 정전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배경으로 한다. 다음 항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해방 후 국민국가의 형성과정과 서정주 시의 '영원성'

서정주가 정전으로 확정되는 과정은 해방과 분단 이후 시급히 '국민국가'를 건설해야했던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민족'이라는 큰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화적 표지"¹⁰가 요구되었고, 이때 '전통'은 민족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호출되고 재구성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해방 전부터 '전통'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였던 김동리, 서정주, 조지훈 등 이른바 '문협정통파'의 위치는 주목될 만하다. 특별히 계급적 관점을 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표나게 '민족'을 앞세우지도 않는 이들은 민족탐구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동양·서양의 변증법적 지

10) 최현식, 「민족, 전통, 그리고 미 -서정주의 중기문학을 중심으로」, 『실천문학』(실천문학사, 2001년 여름), p.60.

양을 통해 전통(민족)의 협소함에 제한되지 않는 논리를 구사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보편성은 해방 후 '국민문학'의 형성과정에서 하나의 이념적·문학적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후 남한의 문학제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¹¹⁾ 서정주의 시가 무난히 한국시의 정전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서정주를 포함한 이른바 '문협정통파'의 문학이념은 해방 후 제도권에서의 문학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과서 수록 작품 채택에 일종의 판단 준거로서 기능한다. 교과서를 통해 형성된 문학에 대한 감각과 심미적 경향은 개인의 문학적 취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¹²⁾ 교과서 수록 작품은 평균적인 독자들의 기초적인 문학 경험을 형성하며, 비평가나 작가의 작품 인용·참조 등의 정전 형성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서정주의 시는 이러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나갈 뿐만 아니라, 당시 문학사 기술의 공백과 단절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시인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근대시사¹³⁾를 스스로 서술함으로써 문학사적 권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서정주가 정전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시대적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영향이 상당 부분 개입한다고 해서 정전으로서의 그의 문학의 가치가 탈각되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상황과 교섭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름 아닌 그의 작품 속에 내재한다. 그 요인이란 무엇보다도 그가 시적 본질의 탐구에 가장 중요한 시작(詩作)의 목적을 둔다는 점에 있다. 특히 그의 전체 시세계에 걸쳐 주요한 시적 주제라 할 수 있는 '영원성'은 시적 언어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자아와 세계의 동일화를 통해 시간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초적 시간으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서정시에서 '영원성'이란 장르의 근본 원리에 가장 충실한 시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서정주의 시는 '영원성'을 구

11)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향방**과 서정주를 위시한 '문협정통파'의 이론적 경향에 대해서는 최현식이 위의 글에서 자세히 고찰한 바 있다.

12) 박현호, 『한국인의 애독작품 -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책세상, 2001), p.12.

13) 서정주, 『현대조선시약사』, 『현대조선명시선』(문운사, 1950).

현하는 시적 순간의 체험을 예민하게 포착한다. 시적 순간의 체험이란 자아와 세계가 대립을 허물고 서로 융화함으로써 제한된 자아의 경계를 뛰어넘는 순간의 체험을 이른다. 에밀 슈타이거는 서정적인 것의 본질을 이루는 '융화'가 "견고한 것의 녹아내리는 작용"¹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를 사랑과 여성적 기질에 비유하는 그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육체라는 성가신 가두리도, 개인의 자유와 고집스런 자아 의식도 한 순간에 "녹아내리는" 동일성의 체험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상호융화'와 '동감'의 과정이 여성적 정체성의 핵심과 닿아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¹⁵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에 있다. 서정주의 시가 주제로 삼는 '영원성'과 그의 시에서 빈번하게 형상화되는 '여성성'은 그의 시가 시적 본질에 대단히 충실하다는 증거가 된다. 본고에서는 서정주 시가 보여주는 '시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그의 문학을 정전의 자리에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요인이면서, 한편으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시적인 것'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사실이 정전으로서의 그의 시가 한국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 영향은 부정적인 지점과 긍정적인 지점, 양편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난 '영원성'과 '여성성'의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세계가 지니는 특장과 문제 지점, 아울러 그것이 불러온 영향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2. 서정주 시에 나타난 '영원성'과 '여성성'

1) 관능적 생명력과 환타즘의 순간

젊은 미당의 첫 시집 『화사집』은 원초적인 성의 욕망과 성적 환상이 제공 하는 초월적 순간의 체험으로 가득차있다. 표제시 「화사」를 비롯해 「대낮」,

14)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 역, 『시학의 근본개념』(삼중당, 1978), p.109.

15) 에밀 슈타이거, 위의 책, p.287.

「麥夏」, 「입마춤」, 「가시내」 등의 시에서는 ‘생명’ 그 자체의 원초적 충동에 자기를 맡기고 관능적 열광의 상태에 몰입하는 시적 자아의 존재가 확인된다. 『화사집』에 나타나는 강렬한 성(性) 충동은 금기의 영역에서 시적 동기를 찾고 예술적 형상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특히 윤리나 관념에 윤색되지 않은 직접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직정언어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금기의 예술화’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발견은 이후에 전개되는 서정주의 전체 시세계를 고려할 때에도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금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일탈의 욕망은 시적 자아를 환타즘의 세계로 몰입하게 한다. 환타즘의 세계란 일종의 환각의 세계, 즉 성적 환상의 체험으로의 도입을 뜻한다. 거기서 시적 자아는 개체성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뛰어 넘어 잃어버렸던 연속성을 회구한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로 파고들려는 욕망이자¹⁶⁾ 시간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영원성’의 순간을 살아내려는 의식의 표현이다. 「화사」는 이러한 환각의 세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이다.

사향 박하의 뒤안길이다. / 아름다운 배암... / 얼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여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동아리나 // 꽃다님 같다 /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遑辯의 헛바닥이 / 소리없는 채 널롱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히 무려뜯어, // 다라나거라. 저 놈의 대가리! // 돌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사향 방초스길 /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 우리 할아버지의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 石油먹은듯...石油먹은듯...가쁜 숨결이야 //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 크레오파투라의 피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훈 입설이다...습여라! 배암. // 우리 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훈 입설...습여라! 배암.

— 「花蛇」 전문

16) 허윤희, 「서정주시 연구 - 후기시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0), p.24.

이 시에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뱀의 뒤를 따라가는 시적 자아는 뱀에게 '아름답'고 동시에 '징그'럽다는 이중의 감정을 느낀다. 그는 뱀의 뒤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시 전반부의 상황은 성(性)이라는 금기사항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억압과 일탈의 이원적 갈등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상의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논리적 통사구조를 파괴하며 등장하는 “석유먹은듯...석유먹은듯...가쁜 숨결이야”라는 구절은 인간의 이원적 갈등을 뛰어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환각적 체험의 도입 부분이다. 환각에의 몰입을 통해서 시적 자아는 '배암'과 동일시되어 성적 환상의 순간으로 들어 서고 있다.

그런데 「화사」에 나타나는 성적 환상을 통한 영원성의 순간이란 단지 관능적 열광이나 해방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그것은 제한된 시간 경험에서 해방된 '영원성'의 시간에 대한 꿈이 바로 시적 언어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와 맥을 같이 하며, 에로티시즘의 형태가 도달하는 영원성의 순간이란 시적 체험의 순간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화사집」의 서정주는 성적 욕망의 표출을 통해서 금기를 예술화하고 문학적 일탈을 감행할 뿐만 아니라, 시적 언어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한국근대시사의 주된 줄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화사」에 나타나는, “시의 리듬을 철저히 외면한 자리에서” 성취되는 “특수한 관능의 음악”은¹⁷⁾ 바로 저항과 일탈을 통해 본질적으로 시성(詩性, poeticity)을 추구해가는 서정주 시의 기본태도를 확인하게 한다.

관능적 생명력에 기초한 환각의 순간은 「대낮」, 「맥하」 등 여러 작품에서 두루 발견된다. “햇수 먹은듯 취해 나자빠진 / 능구렁이같은 등어릿길로 /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 // ... (중략) ... // 밤처럼 고요한 끝은 대낮에 / 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 ……”로 끝나는 「대낮」을 통해서도 볼 수 있

17) 천이두, 「지옥과 열반」, 조연현 외, 『미당 연구』(민음사, 1994), p.54.

듯이, 이들 작품에서는 일상으로부터 일탈하는 관능적 열광의 상태와 그 체험의 순간 자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관능적 환각으로의 순간적 몰입을 통해 제한된 일상의 시간으로부터 일탈하고 동시에 시적 체험의 순간을 살아내는 이러한 방식은 시작(詩作) 과정에 성차(性差)에 대한 의식이 침투하고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일정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화사」 등의 시편에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가시내’(여성)와 관능적 체험의 순간이 제시되었다면, 성차에 대한 의식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정오의 언덕에서」, 「雄鷄」 등의 시편에서는 남성성을 체현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나르시즘적 환각의 체험이 나타나고 있다.

보지마라 너 눈물어린 눈으로는 …… / 소란한 哄笑의 正午 天心에 / 다붙은 내
입설의 피문은 입마춤과 / 無限 慾望의 그윽한 이戰慄을…… // 아—어찌 참을 것
이나! / 슬픈이는 모다 巴蜀으로 갔어도, / 뽕뽕그리는 불벌의 때를 / 꿀과함께 나
는 가슴으로 먹었노라. // 시약시야 나는 아름답구나 // 내 살결은 樹皮의 검은빛
/ 黃金 太陽을 머리에 달고 / 沒藥 麝香의 薰薰한 이꽃자리 / 내 숫사슴의 춤추며
뛰어 가자 // 우슴웃는 짐생, 짐생 속으로.

—「正午의 언덕에서」 전문

구약성서 가운데 「雅歌」의 한 구절인 “향기로운 산우에 노루와 적은시슴
같이있을지어다”를 부제로 삼고 있는 이 시는 그리스도의 수난의 이미지를
그린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¹⁸⁾ 이같은 관점에 따르면, “正午의 언덕”이
라는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과 장소를 상징하며, “눈물어린
눈”, “다붙은 내입설의 피문은 입마춤” 등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원형적 이
미지와 그의 수난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성서 속
의 수난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때의 ‘수난’ 역시 성적 이

18) 유성호, 「서경주 「화사집」의 구성원리와 구조」,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하늘연못, 1999), p.31.

미지와 결합되어 제시되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성(sexuality)과 신성(神性)의 결합을 통해 남성성을 부각시키며 나르시즘적 환각 체험의 순간으로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화사」 등의 시편에서 일상을 초월해 환각의 시간으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이 시에서는 시의 도입 부분이 이미 환각의 상태에서 시작되어 신성(神性)의 삶을 향해 고양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성성이 강조된 일종의 자기도취는 환각 체험의 순간을 한층 강렬한 것으로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正午의 언덕에서」에서 ‘숫사슴’이 자기동화의 대상으로 등장한 데 비해, 「雄鷄」에서는 ‘수탉’이 동일화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모래속에서 이러한 목아지로 / 새벽에 우리, 기쁨에 嗚咽하니 / 새로자라난 齒가 모다떨려. // 감물되린빛으로 지터만가는 / 내 裸體의 샷샷이 ……/ 수슬 수슬 날개털디 리우고 닭이 우스면”과 같은 구절은 ‘수탉’이 표상하는 남성성에 자기를 동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地歸千年의 正午”라는 ‘영원성’의 시간, 시간 이전의 원초적 시간으로 몰입해가는 시적 자아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은 결국 신성적(神性的) 육체성을 구현한 대상과 환각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정주 시에서 남성적 동물성을 부각시키면서 그에 동화되는 과정은 여성성과 영원성을 결합시키는 방식과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화사」 등의 시편에서 관능적 생명력의 체현자인 여성이 시적 순간과 에로티시즘의 순간을 더불어 체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부활」의 여성은 이미 초월적 시간에 들어서서 시적 자아를 환각 체험으로 이끌어들이는 존재이다.

내 너를 찾아왔다…, 兪娜. 너참 내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혼자서 鎧路를 거러 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새벽닭이 울때마다 보고싶었다 …내 부르는 소리 귓가에 들리드냐. 兪娜, 이것이 몇萬時間만이나. 그날 꽃喪阜 山넘어서 간다 음 내눈동자속에는 빈하늘만 남드니, 매만저 볼 머릿카락 하나 머릿카락 하나 없

드니, 비단 자꾸오고……燭불밖에 부흥이 우는 돌門을열고가면 江물은 또 뗏천린 지, 한번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住所에서 너무슨 무지개로 내려왔느냐. 鐘路네 거리에 뿌우여니 흐터지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빛에 오는애들. 그중에도 열아홉 살쯤 스무살쯤 되는애들. 그들의 눈망울속에, 핏대에, 가슴속에 드러앉어 奼娜! 奼娜! 너 인제 모두다 내앞에 오는구나.

—「復活」전문

「復活」은 죽은 애인의 환생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 환생하는 여성, '奼娜'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삶의 공간을 뛰어넘어 죽음을 극복한, 죽음 이후의 시간에 존재한다. "뗏萬時間만"에 "뗏천린지, 한번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住所에서" 내려온 '奼娜'는 여성성의 본질 속에서 이미 초월과 재생의 영원한 시간을 체현하고 있다. 죽은 '奼娜'가 "조잘대"는 다수의 애들로 부활하는 과정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여성의 생리학적 정체성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때 여성성의 육체는 그 과정에 내재한 고통과 창조성 보다는 그것을 배제하고 뛰어넘는 재생의 시간적 체험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화사」에서 일상과 환각의 대비를 통해서 환각의 세계, 곧 시적 순간의 체험을 강조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미 초월적 시간 속에 돌입해 있는 여성은 시적 자아를 영원성의 시간 속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며 그에게 환각적 통합을 체험하게 한다. 「화사」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들의 결합을 통해 시적인 것의 본질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부활」에서는 남성성 혹은 남성성이 투과된 여성성이라는 한 쪽 성(性)을 강조하면서 대립을 제거하고 한 편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여기서 순수한 시적인 본질은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현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일상적인 것, 유한한 존재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 시적인 것이 발견되고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한성을 제거한 초월적 체험의 시간 속에서 신성(神性)과 시성(詩性)을 자기 안에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화사집」 이후의 서정주의 시세계가 곧장 신성 구현의 세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은 아

니다. 그의 시세계는 일직선을 그으며 나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시가 시적 차원을 뛰어 넘어 종교의 차원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는 이미 『화사집』 안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종교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원성의 구현이 여성성(femininity)과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완전한 여성, 영원한 시간

서정주의 중기 시에서 구현되는 영원성은 여성적이다. 이때 여성적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으로 정의되어 온 것들과 동일시되는 언어이다. 성적 차이에 의해 강조되는 ‘여성성’은 능동적/남성적, 수동적/여성적이라는 대립을 제도화하는 체계 안에서 의미를 얻는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화된 여성성이 모성성과 결합될 때 그때 여성적이라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특성을 통합한 것으로 제시된다. 부드럽고 연약하고 아름다우며, 한편 강하고 질기며 너그럽다는 것은 여성성의 충만함이면서 동시에 남성성을 포괄하는, 성별 분리를 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즉 모성과 결합된 여성성은 “여성이 남성적 충동과 여성적 충동을 자기 내부에서 통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원적인 총체성의 궁극적 상징”¹⁹⁾으로 등장한다.

서정주의 시에 구현된 모성적 여성성은 영원성에 옷을 입히는 역할, 다시 말해 그의 시에서 영원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의 형상은 에로틱한 신화적 존재, 이성과 사회질서의 경계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리비도적 힘의 신비로운 화신²⁰⁾으로 등장하며, 때로는 인고의 세월을 뛰어넘는 한(恨)과 인종의 표상, 또는 고통과 상실의 체험을 다스리는 구원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먼저 앞절에서 검토한 「부활」의 연속선 위에 있는 작품으로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를 살

19)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94.

20) 리타 펠스키, 위의 책, p.90.

피보기로 한다.

아조 할수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 / 이제는 다시 도라올수없는 옛날의 모습들. 안개와같이 스러진 것들의 形象을 불러 이르킨다 / 귀사가에 와서 아스라히 속삭이고는, 스쳐가는 소리들. 머언 幽明에서처럼 그소리는 들러오는것이나, 한 마디도 그뜻을 알수는없다. // 다만 느끼는건 너이들의 숨소리. 소녀여, 어디에 들 安在하는지. 너이들의 呼吸의 훈짐으로써 다시금 도라오는 내靑춘을 느낄따름 인것이다. // … (중략) … // 少女여. 내가 가는날은 도라 오련가. 내가 아조 가는 날은 도라 오련가 막달라의 마리아처럼 두눈에는 반가운 눈물로 어리여서, 머리 털로 내 손끝을 스치이련가. //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찢려 앞어혈때는, 네名의少女는 내결에 와 서는 것이였다. 내가 찢레스가시나 새금팔에 베혀 앞어혈때는, 어머니와같은 손까락으로 나를 나시우러 오는것이였다. // 손까락 끝에 나의 어린 피 사방울을 적시우며, 한名의少女가 걱정을하면 세名의少女도 걱정을허며, 그 노오란 꽃송이로 문지르고는, 하연 꽃송이로 문지르고는, 빼앗안 꽃송이로 문지르고는 하든 나의傷처기는 어찌면 그리도 잘 낫는것이였든가. // … (중략) …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싶은가. // …(략)… // 내가 아조 가는날은 도라 오련가?

—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 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부분

이 시에서 “이제는 다시 도라올수없는 옛날”의 “고향”은 “섭섭이와 서운니와 푸접이와 순네라하는 네名의少女”의 형상과 겹친다. 시적 자아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네명의 소녀와 어울리는 환각 체험 속으로 몰입하고 있다. 소녀의 형상이 불러일으키는 여성성은 “어머니와 같은 손까락으로 나를 나시우러 오는” 그녀들이 담지한 모성성과 결합되면서, 이상적이고 신비스런 여성상의 구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시적 자아에게 “청춘”과 “생명의환희”를 체험하게 하는 “네名의少女”와의 만남은 “내가 정령이 되어”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신화적 시간, 또는 “내가 아조 가는날”인 죽음 이

후의 시간에만 가능하다. 시간성의 한계를 뛰어 넘는 영원성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구원의 여성으로 등장하는 소녀들은 끊임없이 초월적 체험의 시간 안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시적 자아를 그 세계 안으로 강력히 끌어들이며 수직상승하게 한다.

「부활」과 「무슨 꽃으로 …」에 나타난 구원의 여인상은 이후의 서정주 시 세계에서 중요한 표상으로 반복된다. 서정주 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영원성’은 여성의 표상을 빌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한한 현실시간을 뛰어넘어 “우주적 무한과 시간적 영원”²¹⁾의 세계로 초월하여 안정되고 통합적인 자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구원의 피난처로서의 여성상에 덮씌워진 채 특유의 시적 표현을 얻고 있다. ‘누님’과 ‘춘향’은 서정주의 중기시에서 ‘영원성’의 세계를 비취보이는 대표적인 두 개의 표상이다.

「木花」, 「누님의 집」, 「국화 옆에서」 등의 시에서 ‘누님’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며 고뇌어린 생의 여정을 견뎌낸 ‘인고(忍苦)와 ‘인종(忍從)’의 표상이자, 고립된 개체로서의 생명체들을 서로 연결하고 아우르는 ‘인연(因緣)’의 매개체이다. ‘누님’은 “저, 痲藥과 같은 봄을 지내여서 / 저, 無知한 여름을 지내여서 / 질갱이 풀 지슴스길을 오르 내리며” “다수곳이 젖어있는 붉고 흰 木花 꽃”(「木花」)을 피워 내는 존재이며, “솔작새”와 “떡구름”과 “무서리”가 벌이는 왕성한 자연의 작용을 “노오란” 국화꽃잎으로 모두어내는(「국화 옆에서」) 인연의 끈이다. 한편, 「鱗鱗濼詞」, 「다시 밝는 날에」, 「春香 遺文」 등 ‘춘향 3부작’에 등장하는 ‘춘향’은 현실시간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유한성을 뛰어 넘어 윤회(輪廻)와 연기(緣起)를 바탕으로 하는 ‘영원성’의 세계를 재생시킨다.

‘누님’과 ‘춘향’은 서정주의 시에 초월과 주술의 세계를 펼쳐보이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까마득한 신성의 세계를 아늑한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속

21) 서정주, 「한국 시정신의 전통」, 『서정주 문학전집』 2(일지사, 1972), p.118.

에서 살아보게 하며, 그 아늑함 가운데서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심미화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과 순응의 미학이 여성성의 이미지를 중요한 바탕으로 하며, 또 한편 분단과 전쟁 이후 체제유지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했던 ‘민족정서’ 및 ‘전통’의 이데올로기화 과정과 매개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은근과 끈기”, “애처럼과 가냘픔” 등의 한민족 정서에 부여된, 이미 익숙한 성격들이 ‘여성성’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기초로 하고 있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정주의 시에서도 ‘여성성’은 민족정서의 심미화와 연관을 맺는다. 적어도 『冬天』(1968) 무렵까지의 서정주 시에서 ‘여성성’이 삶의 일상적 차원을 제거하고 신비주의와 초월성을 강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편 그러한 과정이 전쟁 이후 ‘국민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전통적(토속적) 서정시를 한 주류로 자리잡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서정주의 시에서 ‘여성성’은 ‘신성’²²⁾과 결합하며 시적 자아와 대상과 독자를 순식간에 영원성의 세계로 끌어올린다. 『新羅少』(1960) 무렵부터 ‘여성성’과 ‘신성’이 더욱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아예 신이 되어버리는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의 시에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선덕여왕의 말씀」, 「한라산 산신녀 인상」은 ‘여성’이 신적 존재로 등장하는 시이다. 「선덕여왕의 말씀」은 ‘선덕여왕’이 자신을 짝사랑하는 지귀(志鬼)의 가슴 위에 팔찌를 벗어놓았다는 설화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여왕을 지고한 사랑의 표상이자 풍류적 삶의 실현자로서 등장시킨다. 이미 천상계에 속한 선덕여왕은 지상계의 번뇌와 욕망을 어루만지며 두 세계의 경계를 무화시킨다. 지귀의 가슴 위에 벗어놓은 “황금팔찌”와 “어지러운 불”을 다스리기 위해 지어부른 “노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여왕과 지귀

22) 이때의 ‘신성(神聖)’은 초월적인 절대자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세계와 조응하고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술적인 존재임을 뜻한다. ‘여성성’과 ‘신성’이 결합되는 과정은 ‘인내’와 ‘한’의 표상이자 근원적으로 모성성의 체현자인 ‘여성’의 성별성이 극대화되면서 신성화된 이미지로 승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²³⁾ 「한라산 산신녀 인상」에서도 시적 자아와 ‘산신녀’라는 신성한 존재와 만나는 신비스런 체험이 그려진다.

잉잉거리는 불고추로 / 망가진 썩이파리로 / 또 소금덩이로 / 西歸浦 바닷가에
표착해 있노라니 / 漢拏山頂의 山神女 / 두레박으로 나를 떠서 길어 올려 / 시르
미 난초밭에 누어 놓고 간지럼을 먹이고 / 오줌 누어 목욕시키고 / 耽羅 溪谷 쪽
으로 다시 던져 팽개쳐 버리다. 그네 아나는 九伯億歲, 그 자디잔 九伯億 개 山桃
花 빛 이쁜 주름살 속에 / 나는 흡수되어 덩굴어 내려다가. / 너무 어두워서 옷은
다 벗어 찢어 햇불 붙여 들고 / 기다가 보니 새벽 세 時 / 觀音寺 법당 마루에 가
까스로 와 눕다. / 누게 언제 무슨 핀셋으로 / 九伯億 개 그네의 그 山桃花빛 주름
살 속에서 / 나를 되루 집어내 놓았는지 / 나는 겨우 꺼내어진 듯 안 꺼내어진 듯
/ 이 해 한 달 열흘을 꼬박 누워 시름시름 앓다.

— 「漢拏山 山神女 印象」 전문

이 시에서도 여성은 신성(神性)을 현현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한다. “잉잉 거리는 불고추로 / 망가진 썩이파리로 / 또 소금덩이로 / 서귀포 바닷가에 표착해 있”는, 현실에서 이탈한 시적 자아는 신성적 존재인 “한라산 산신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이한 체험을 경험한다. 시적 자아는 “九伯億歲” 산신녀의 “九伯億 개” “이쁜 주름살 속에” 흡수되면서 일종의 집신 체험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고 존재의 재탄생을 거쳐 현실로 귀환한다. 이 시에서 ‘산신녀’는 훼손될 수 없는 강력한 신성과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과 강인한 생명력”²⁴⁾을 한 몸에 체현하고 있는 존재이다. 앞의 시의 ‘선덕여왕’ 역시 신성의 현현체이자 ‘전통’과 ‘민족’의 표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들 시에서 여성은 ‘신성’과 ‘민족성’ 및 ‘전통’이라는 약호가 한데 겹쳐진 합일체로서, 시적 자아 또는 시 속의 인물들을 일종의 환각 체험 속에서 신성, 또는

23) 나희덕, 「서정주의 『질마재 신화』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99), p.15.

24) 김수이, 「서정주 시의 변천과정 연구」(경희대 박사논문, 1997), p.122.

전통과 일체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넘나들며 영원성을 탐색하는 시인 서정주의 탐구가 민족의 역사와 설화적 세계에서 영원성의 시적 공간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여섯번째 시집 『질마재 신화』(1975)는 이같은 관심이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난 시집이다. 『질마재 신화』의 여성들은 영원성을 구현하는 심미적 인간상들로서 자연, 우주의 섭리와 소통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小者 李 생원네 무우밭은요, 질마재 마을에서도 제일로 무성하고 밭둥어리가 굵다고 소문이 났었는데요. 그건 이 小者 李 생원네 집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 집 마누라의 오줌 기운이 아주 센 때문이라고 모두들 말했읍니다 // ... (략) ... // 여기 이 마누라님의 오줌 속에도 長鼓만큼 무우밭까지 鼓舞시키는 무슨 그런 신바람도 있었는지 모르지.

— 「小者 李 생원네 마누라님이 오줌 기운」 부분

알뒀라는 마을에서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홀어미가 되어 버린 알뒀댁은 보름사리 그득한 바닷물 우에 보름달이 뜰 무렵이면 행실이 꺾어져서 서방질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마을 사람들은 그네에게서 외면을 하고 지냈읍니다만, 하늘에 달이 없는 그믐께에는 사정은 그와 아주 판판이 되었습니다. // 陰 스무날 무렵부터 다음 달 열흘까지 그네가 만든 개피떡 광주리를 안고 마을을 돌며 팔러 다닐 때에는 「떡맛하고 떡 맵사사 역시 알뒀집네를 당할 사람이 없지」 모두 다 흠족해서, 기쁨기로 번즈레한 그네 눈망울과 머리털과 손 끝을 보여 찬양하였읍니다.

— 「알뒀집 개피떡」 부분

아이를 낳지 못해 自進해서 남편에게 小室을 얻어 주고, 언덕 위 솔밭 옆에 홀로 살던 한물宅은 물이 많아서 붙여졌을 것인 한물이란 그네 親庭 마을의 이름과는 또 달리 무척은 차지고 단단하게 살찐 玉같이 생긴 女人이었읍니다. 질마재 마을 여인들의 눈과 눈썹 이빨과 가르마 중에서는 그네 것이 그 중 端正하게 이쁜

것이라 했고, 힘도 또 그 중 아마 실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 바람부는 날 그네가 그득한 옥수수 광우리를 머리에 이고 모시밭 사이 길을 지날 때, 모시 잎들이 바람에 그 흰 배때기를 뒤집어 보이며 파닥거리면 그것도 「한물宅 힘 때문이다」고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우셨습니다.

— 「石女 한물宅의 한숨」 부분

무우밭을 무성하게 일궈내는 오줌 기운 센 “李 생원네 마누라”, 자연의 주기에 생리적 리듬을 조용시키며 마을에서 제일로 “이뿌게” 떡을 빚어내는 “알뫼떡”,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 남편에게 소실을 얻어 주고 외롭게 지내지만 특유의 덕성으로 자연의 물상들과 조용하는 “石女 한물宅”, 이들은 모두 자연의 질서와 합일하고 교감하며 풍부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들 시에서 여성은 이미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물과 조용하면서 우주의 비의를 자신의 육체 안에 체현하고 있다. 이들의 **충만한 생명력**과 너그러운 포용력은 거의 완벽한 여성성과 모성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인 생활현장에 밀착해 있으면서 자연, 우주의 섭리와 소통하는 존재들이다. 즉 현실과 자연, 이승과 저승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지상적 영원의 공간을 형성한다.²⁵⁾

성(聖)과 속(俗), 지상계와 천상계가 서로 경계를 허물고 넘나드는 이러한 경지는 서정주의 시세계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영원성의 추구라는 서정주의 시적 주제는 일관되고 있지만 “민중적 현실에 녹아 있는 영원성의 발견”²⁶⁾이라는 점에서 구체성과 리얼리티가 확보되고 있다는 견해, “영원을 사는 삶의 비전을 촌락 사회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²⁷⁾는 견해는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여성성’과 관련해서도, “이 땅에

25) 이러한 특성은 이 시의 독특한 형식, 즉 과거에 속하는 설화의 세계를 ‘영원한 현재’의 장르인 서정시 속에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26) 나희덕, 앞의 글, p.12.

27) 황종연, 「신들린 시 떠도는 삶」, 『작가세계』(세계사, 1994년 봄), p.42.

서 여성들이 겪었던 고난에 일종의 초월적인 광휘를 가져다주"면서 "지상에 서의 삶을 긍정하는 영원성의 표상"²⁸⁾으로 여성성이 제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질마재 신화』를 서정주의 시세계를 지상의 현실로 끌어내린 시집으로 평가하건 혹은 신화적 원형성의 구현으로 해석하건 간에, 이 시집 역시 그의 시적 주제인 영원성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 오히려 주목할 내용은 영원성의 구현 과정에서 '여성'의 표상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이다. 이전 시의 '누님', '춘향'과 달리 '질마재'에 나타난 여성의 표상은 육체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 여성의 육체는 자연과 소통하고 우주적 리듬을 체현하고 있는 하나의 소우주이다. 생득적인 육체적 감각으로 우주의 섭리를 감지하는 여성의 표상은 '질마재'의 일상 공간을 주술적인 신화의 세계로 채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위의 시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해", 또는 "서방질" 때문에 현실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여성들은 여성 특유의 충만한 생명력과 자연과의 친화력을 통해 질마재라는 구접스런 일상을 우주적 리듬의 공동체적 공간으로 뒤바꿔 놓는다. 불모성마저도 극복하는 완전한 여성성이 여성 자신 뿐만 아니라 그 비의를 알아채고 묵인하는 공동체의 구성원까지도 화해로운 영원성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서정주의 시에서 여성성이 영원성의 세계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시세계에 초월적이고 주술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구체성과 현실성이 확보된 『질마재 신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궁극적으로 서정주 시세계에서 지니는 의미 지점과 한국 현대시사로 귀착되는 귀결점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28) 신범순, 「질기고 부드럽게 걸려진 <영원>」, 조연현 외, 앞의 책, p.296.

3. ‘시적인 것’의 추구하고 그 결과 - 정전으로서의 서정주 시의 의미

미당 서정주가 근본적인 시적 주제로 삼고 있는 ‘영원성’은 다름 아닌 시적 언어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 주제이다. 자아와 세계의 동일화를 통해 시간의 포획으로부터 해방된 원초적 순간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은 시 장르를 낳는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정주는 시의 본질과 순수성을 시적 주제로 일관되게 추구한 거의 최초의 한국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초기시에서 드러나는 에로티시즘의 일면, 시적 전개과정에서 끊임없이 넘나드는 종교적 차원의 세계, 그가 시 속에 끌어들이는 설화의 세계와 자연, 그리고 중요한 표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의 육체까지도 모두 가장 ‘시적인 것’을 관통하는 대상들이다. 시적인 것들은 아날로지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룬다. 아날로지는 반복되고 결합되는 리듬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예외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닳은꼴과 상응을 발견하는 조화와 화합의 무대이다.²⁹⁾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대립을 넘어 다른 육체를 만들어내는 에로티시즘의 순간, 어떤 동경의 대상과의 강력한 동일화 또는 환각적 통합의 체험, 자연물끼리 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용하면서 이루어내는 설화적 공간 등은 서정주의 시에 구현된 아날로지의 세계이다.

그러나 서정주 시의 한계 역시 그가 추구한 ‘시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아날로지는 사물들을 서로의 차별성과 대립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서로 화해시킨다.³⁰⁾ 즉 “유사점들을 조합시킴으로써 차이점들을 없애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살려내어 그 존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³¹⁾ 반면 서정주의 시에 때로 나타나는 무차별적인 동일화의 세계, 사물과 사물이 모

29) 옥타비오 파스, 김은중 옮김, 『흙의 자식들』(솔, 1999), pp.88-89.

30) 옥타비오 파스, 위의 책, p.89.

31) 옥타비오 파스, 위의 책, p.95.

든 차이를 제거하면서 완벽하게 조응하는 세계는 아날로지의 원리조차 어떤 초월적 차원으로 옮겨놓는다. 그 초월적 차원이란 서정주가 추구하는 '영원성'의 시간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는 세계와 합일하고 자연과 조응하는 동일화의 공간 속에서 안정된 자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유희한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태초의 시간', 영원한 시간 안에 머물고자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대시의 반란은 태초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뼈아픈 자각과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현대시는 끊임없이 시작으로 되돌아가지만, 결코 완전히 시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나선형의 인과적 연쇄이다.³²⁾ 영원성의 순간 속에서 합일하는 대상과의 사이에 결코 완전히 합일할 수 없는 균열의 틈을 감지하는 것, 서정주의 시에서 아쉬운 점은 바로 이같은 '불협화음'에 대한 인식이다. 기원이 해체된 시대에 기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은 은폐된 '시적인 것'을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기원의 시간을 '여기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없이 시속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려는 시도는 그의 시를 부단히 '시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논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구와 비판이 결코 그에게 과중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부인할 수 없는 한국의 대표적 정전(正典)으로서, '시인부락의 족장'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족장이 개척한 영토는 부족민들에게 오래도록 생활의 터전과 양식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서정주의 시를 한국시사에 놓고 보았을 때 그가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예정된 결과이다. 그는 '시적인 것'의 본질을 일관되게 추구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한국 서정시의 한 정통적인 전범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정통 서정시의 모델은 동일화 원리에 기초한 합일과 초월의 공간으로써 전통과 토속의 세계를 끊임없이 불러들이며 한국시의 주류를 협소화시킨다. 시(詩)라는 장르는 서정주 시가

32) 옥타비오 파스, 위의 책, p.76.

한국시의 정전으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따라 근대 안에서 근대적으로 규명되기를 거부한 채 근대 체제 안에 순응한다. '여성' 역시 마찬가지다. 시의 신비화와 초월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역시 사회적·역사적 매개의 바깥에 자족적인 충만함의 세계로 존재하면서, 근대 체제 안에 암전히 적응한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근대로부터 배제된다. 이렇게 결과하는 시와 여성의 탈역사화와 탈윤리화는 정전으로서의 서정주 문학이 남긴 간과할 수 없는 폐해 중의 하나일 것이다.

■ 필자 : 경원대 강사

Abstract

Experience of Poetic Moment and Gender of Eternity
- A study on Seo Jeong-Ju's poetry as a canon

Kim Shin-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poems of Seo Jeong-Ju as a canon. While I basically took the method of the intrinsic analysis, I ultimately paid attention to not only the place that his poems have as a canon but also the relation of influence that his poems have had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point aimed at in this paper are the world of 'eternity' and 'femininity' that are shown in his poems. The 'eternity' and 'femininity' are the evidence that his poems are very faithful to the poetic nature. To study 'the poeticity' that his poems have shown is an important factor that locate his literature at the place of a canon.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y are faithful to the poeticity other than anything else plays the factor that his poems have tremendous influence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Due to this interest, in this paper, I studied the combining process of the study on the eternity found in his poems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femininity'. I confirmed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femininity' in his poems plays the role of not only as the important occasion in embodying the world of 'eternity' but also strengthening the transcendental and shamanistic aspects of his poetic world. In conclusion, the point of meaning of his poems as a canon stems from the 'poeticity' he had pursued. Seo Jeong-Ju is a poet who suggested the orthodox paradigm of Korean lyric poetry by consistently pursuing the nature and pureness of the 'poeticity'.

However, the model of the orthodox lyric poetry he suggested has produced the result of narrowing down the mainstream of Korean poetry by constantly eliciting the world of tradition and folklore as the space of union and transcende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